

기획

학내 자치공간 부족 심각… ‘갈 곳 없는 학생들’

국제캠 자치공간 문제

이시은 기자 dtldms77@knu.ac.kr

【국제】 올해 초부터 공과대학 오른쪽 건물이 공간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소속 밴드 동아리 ‘카오스’의 거취문제 때문이다. 현재 카오스 동아리방의 위치는 공과대학 오른쪽 건물 꼭대기다. 내부 공간 부족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과대학 행정실 측이 전자정보대학 소속 동아리인 카오스에게 지속적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카오스는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전자정보대학도 공간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절박한 심정에 학교 내 모든 단과대학을 찾아가 봤지만, 모두 공간이 없다는 부정적 답변만 얻었다. 카오스 백두산(전자·전파공학 2009)전 회장은 “정말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것 같다”라며 “밴드에게 동아리방은 그저 모임의 장소가 아닌 동아리의 존속이 달린 장소라 굉장히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은 같은 단과대학 소속 밴드 ‘뮤트’ 또한 마찬가지다. 뮤트의 경우 지난해 3월 아예 다른 공과대학 동아리에게 방을 인계하고 나와 버렸다. 악기와 물품은 전자정보대학 창고에 넣어 둔 채로 동아리 활동은 1년이 넘도록 무기한 연기 상태다. 학주공간이 없어 따로 연주조차 힘들다. 뮤트 정성호(전자·전파공학 2013) 회장은 “공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래 공간을 제공해야 할 전자정보대학 조차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다”라며 “어느 쪽도 책임이 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 안에 우리가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매우 답답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1997년 학부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99년 전자정보학부가 신설되었다. 03년 다시 공과대학 내부의 개편이 이루어 지면서 전자정보대학은 독립했다. 이러한 잦은 편제 개편 속 ‘이사’의 시기를 놓쳐 미처 끌어오지 못한 동아리방들이 단과대학 별 공간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는 것이다.

공과대학 행정실은 자치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한계까지 왔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과대학은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총 9개 학과에 학부 재학생 인원만 3,200명이 넘는 대규모 단과대학이지만 건물은 80년에 지



공과대학관 3,200명 넘는 인원 80년에 지어진 건물 1개 사용

전자정보대학관 응용과학대학과 건물 함께 사용

생명과학대학관 부족한 넓이 개미집 구조형태의 안전문제

외국어대학관 동아리방 함께 사용, 학과방, 강의실 전전하기도

어진 공과대학관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 인원이 증가하고 공간 활용이 힘들어지면서 재작년 12월에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나 공간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공과대학 행정실 조지원 행정실장은 “공간 문제는 현재 공대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계장은 “공과대학은 특성상 다양한 연구 기자재와 실험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라며 “지금은 공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변변한 공간마련도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상황은 전자정보대학 또한 다르지 않다.

응용과학대학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전

자정보대학에는 26개의 동아리가 소속되어 활동 중이다. 그중 카오스를 제외하더라도 6개 동아리가 공간이 전무한 상태다. 전자정보대학 행정실 조지원 행정실장은 “두 단과대학이 함께 쓰는 전자정보대학의 공간问题是 굉장히 복잡하다”라며 공간문제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조 실장은 “연구 공간, 강의 공간 등 공간은 항상 부족한 실정”이라며 “자치공간 또한 같은 맥락의 문제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정보대학은 교수 휴게실을 통합시켜 운영하고, 컴퓨터공학과 동아리방을 리모델링해 학생 공용공간을 만들어 내는 등 기준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절대적인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공간이 없는 동아리에게 동아리 지원금을 좀 더 많이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현재의 자치공간들 중 공용공간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해결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정보대학 학생회 손권(전자·전파공학 2010) 회장은 이러한 행정실의 움직임에 관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행정실의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기존의 동아리 공간을 줄이고 공용공간을 늘리는 것은 시간을 갖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손 회장은 “현재의 자치 공간 부족 문제는 물리적으로 ‘공간 자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며 “학생들의 불편함을 모두 알지만 당장 해결해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응용과학대학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응용과학대학에 필요

<공과대학 총투표 결과>

신공학관 진행 상황 전면 공개 1,878(95.67%)
① 학교에 위임 85(4.33%)
② 찬성(단과대학별 토의지원금지율사용) 1,463(74.63%)
③ 반대(현상황유지) 498(25.37%)
④ 공학관 개보수 지금 당장 필요하다 1,454(74.07%)
⑤ 예산 고려, 불편해도 참는다 509(25.93%)

▲ 국제캠 총투표와 함께 진행된 공과대학 총투표 3개 건물, 총투표권자 3,284명 중 1,963명이 참가했다.

◀ 우주과학과 밴드동아리 ‘해산’은 전자정보대학 인근 공터에 임시 가설물을 동아리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자치공간의 수는 학생회실 5개와 소속 공식 동아리의 수 15개를 합친 20개. 하지만 자치공간의 대표적인 단과대학 학생회실 조차 전자정보대학 학생회실을 함께 쓰고 있다. 또한 공과대학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응용화학과를 제외하면 응용물리학과 동아리 ‘천무’의 동아리방 1개와 학생회실 3개를 합한 4개의 자치공간이 전부다. 우주과학과 소속 밴드 ‘해산’은 전자정보대학 밖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를 동아리실로 활용하고 있다. 우주과학과 유일의 ‘동아리방’인 셈이다. 응용수학과 소속 동아리는 모두 공간을 배정받지 못했다. 공과대학에 있는 응용화학과는 학생회실 1개와 동아리방 2개를 배정받아 사용 중이다. 여학생 휴게실이나 다른 공용 자치공간은 꿈도 끌 수 없다. 응용과학대학 학생회 김형준(응용수학 2010) 부회장은 “매년 SPACE21사업 회의에 나가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어대학 학생들은 ‘동아리 방을 다른 과와 함께 쓴다’는 개념이 익숙하다. 7개 학과에 공식 동아리 수는 모두 30개. 동아리/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posco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합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던 포스코가 글로벌 경쟁력 5년 연속
세계 1위의 철강사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끝없는 도전정신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날의 업적과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세상,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POSCO the Great 를 향해 끝없이 도전할 것입니다.